

농어촌공 장흥, 농촌 취약계층 '집 고쳐주기' 봉사활동 전개

✎ 김미성 기자 | ☎ 승인 2025.06.18 15:50

정주 여건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기여 도모



윤성은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지사장과 지사 직원들은 18일 장흥군 장흥읍 동동리에 위치한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'농촌 집 고쳐주기' 활동을 진행했다. /사진-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

[투어코리아=김미성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가 농촌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. 윤성은 지사장과 지사 직원들은 18일 장흥군 장흥읍 동동리에 위치한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'농촌 집 고쳐주기' 활동을 진행했다.

‘농촌 집 고쳐주기’는 농어촌 노후주택 증가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한국농어촌공사, 다솜복지재단, 농림축산식품부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서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.

이날 현장에서는 공사 직원들과 전문보수업체가 함께 참여해 노후된 출입문을 수리, 낡은 장판과 도배를 교체, 부엌 싱크대 교체 등 거주지의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했다.

특히 노후된 출입문 교체를 통해 단열효과를 높였으며, 오랜 기간 방치되었던 내부 가구 정리 작업을 병행해 보다 안전하고 정돈된 주거지가 조성됐다.

수혜자인 정 모씨는 “낙후된 거주환경으로 인해 불편함이 많았는데 농어촌공사의 지원 덕분에 거주 여건이 개선되서 너무 감사하다”고 말했다.

윤성은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장은 “농어촌 지역민들이 보다 나은 정주 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민의 의견을 수용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”이라며, “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존하고 상생하는 공사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

김미성 기자